

아카시아 포럼이란?

Introduction ARCASIA Forum

지난 호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아카시아(ARCASIA)에 대해서 이번 호부터는 목적이나 연혁 및 중요한 행사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난 호에서 잘못 표현된 것을 바로잡는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은 ARCASIA Students Prize(아시아건축상은 Award임)이다. 이번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제10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의 주제는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Tradition in Architecture)'으로 수정되었다. 지난 2월 피·카시(P. Kasi) 아카시아 신임의장(Chairman ARCASIA)의 우리협회 방문시 다각적으로 행사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아카시아 자체가 아시아에서의 일이므로 굳이 아시아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데 중지를 모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친교행사 항목은 주최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구성한다. 개막식과 환영만찬을 함께 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우정의 밤과 폐회만찬은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을 별도로 넣고 폐회만찬에 우정의 밤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는 개막식에 환영만찬을 곁들이고, 문화의 밤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고, 폐회만찬시 우정의 밤 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참가국들의 장기자랑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카시아학술토론회(ARCASIA Forum)를 중심으로 회원국 및 지역구분, 연혁 등을 아카시아의 규약(Arcasia Constitution) 및 정관(Arcasia Bye-laws), 그리고 점검표(Checklist)를 참고로 하여 소개한다. <필자주>

아카시아(ARCASIA,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는 아시아지역의 회원국건축사협회의 회장들로 구성되는 협의회(Council을 실제회의에서는 이사회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협의회라고 해둔다. ^{필자주})이다. 이 이사회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이라는 직업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집단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마다 모인다. 아카시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바탕 위에서 우호적, 지적, 예술적, 교육적, 과학적인 유대관계를 기르기 위해 아시아지역의 각국 건축사협회의 결속
- 회원협회간에 직업적인 연결, 또는 상호협력 및 조력의 촉진 및 유지
- 회원협회의 건축가/건축사들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참여
- 사회 속에서 건축가/건축사의 역할 인식의 고취
-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가/건축사의 개발 및 교육의 장려
- 건조환경(the Built Environment)이라는 분야에서 연구 및 기술적 진보의 증진

지난 호에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아카시아는 1967년 인도 뉴델리에서의 영연방건축가협회(CAA,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연방건축가협회 회원국 중에서 아시아에 위치한 6개국(이들은 후에 아카시아의 창설멤버가 된다)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홍콩이었고 이들에게는 환경 설계 및 통일성에 관한 일종의 지역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당시 환경 및 기술증진 센터(CETA,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Technical Advancement)와 아카시아설립협의회(ARCASIA Formation Council)라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 최초의 설립협의회(1969~1974)는 1970년 9월 CAA의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장래집회와 아카시아를 공식적으로 ARCASIA,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로 부르기로 결의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임이기를 원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회원국들간에 긴밀한 활동관계를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었다. 지금의 많은 회원국들은 이미 국제건축가연맹(UIA)의 회원이다. 1970년 인도네시아(IAI)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1972년 방글라데시(IAB)와 타일랜드(ASA)가 회원이 되었고, 1974년 필리핀(UAP)이 참관하였다가

1977년 정식회원이 되었다. 홍콩에서 최초의 설립협의회 결성한 지 10년 후인 197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아카시아규약(the Constitutions for ARCASIA)과 아카시아건축교육위원회(ABAE, ARCASIA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가 승인(Sign)되었다. 이때 참석한 회원협회는 다음과 같다.

- 홍콩(HKIA,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 인도네시아(IAI, Ikatan Arsitek Indonesia)
- 말레이시아(PAM, Perbuan Akitek Malaysia)
- 타일랜드(ASA,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 싱가포르(SIA,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 필리핀(UAP,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이러하여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이 새로운 아시아각국의 건축사협회회장(또는 대표 건축사)들의 협의회/이사회(council)에서 두문자(頭文字) "ARCASIA"는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1980년 10개국 협회가 규약에 서명(Endorse)을 했고 그해 8월 제1회 아카시아이사회(the First Council Meeting of ARCASIA)와 제1회 건축교육위원회(ABAE)가 방콕에서 열렸다. 이로서 타일랜드가 각 회원국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연례회의(Regular Annual Meetings) 주최국 우선 순서가 되었다. 1981년부터의 연례에 대해서는 이번의 아카시아 학술토론회(ARCASIA Forum) 및 다음 호에도 계속될 아시아건축사대회(ACA)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981년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회원국은 대개 참관자로 참석했다가 이듬해나 몇 년 후 승인을 받아 정식회원이 되어 1997~1998년 현재 15개국의 건축가/건축사협회가 회원이며 1998년 베트남(VAA)이 입회승인 되었다. 점점 협의내용이나 발표내용이 다양해진다.

회원협회 및 사무국 조직

■ 회원협회(ARCASIA Member Institutes 1997~1998)

- 방글라데시(IAB, Institute of Architects, Bangladesh)
- 중국(ASC,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 홍콩(HKIA,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 인도(IIA,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 인도네시아(IAI, Ikatan Arsitek Indonesia)
- 일본(JIA,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 대한민국(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마카오(MMA, Macaulnstitute of Architects)
- 말레이시아(PAM, Perbuan Akitek Malaysia)
- 몽골리아(UMA, Union of Mongolian Architects)
- 파키스탄(IAP, Institute of Architects, Pakistan)
- 필리핀(UAP,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 싱가포르(SIA,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 스리랑카(SLIA,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 타일랜드(ASA,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 베트남(VAA, Vietnam Architects' Association): 참관자자격
회원협회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다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신규회원국은 위치가 맞는 구역에 속하게 된다.

■ 3개 구역(ARCASIA Zones)

- Zone-A: 방글라데시, 인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Zone-B: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 (베트남)
- Zone-C: 중국, 대한민국, 몽고, 일본, 홍콩, 마카오

■ 의장단의 구성(Office Bearers)

의장단의 구성은 학술대회인지, 건축사대회인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되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아카시아의장(Chairman ARCASIA)
- 아카시아부의장(Deputy Chairmen ARCASIA)
- Zone-A Zone-B Zone-C
- 서기(Honorary Secretary ARCASIA)
- 회계(Honorary Treasurer ARCASIA)
- 전임의장(Immediate Past Chairman)
- 고문-Ⅰ (Advisor-Ⅰ)
- 고문-Ⅱ (Advisor-Ⅱ)
- 교육위원회 의장(Chairman ACAE)
- 주최국의장 및 아시아건축상 의장(Convenor ACA/FORUM & Convenor ARCASIA Awards)
- 뉴스레터 편집장(Editor ARCASIA Newsletter)
- 잼버리 의장(ARCASIA Student Jamboree Convenor)
- 펠로우쉽 의장(ARCASIA Fellowship Convenor)

아카시아 학술토론회(ARCASIA Forum)

■ 아카시아 학술토론회

아카시아 학술토론회는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당대(當代)의 건축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하나의 장(場)이다. 이는 아시아라는 상황에서의 건축과 환경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아시아식 “생각사출기(Catapult of Minds)”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저명한 건축가나 사상가들의 회합이다.

아카시아학술토론회(Forum)가 처음부터 아시아건축사대회(ACA)와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열렸던 것은 아니었다. 앞에 주요연혁에 이어서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연혁을 보면 최초의 학술토론회(1982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워크숍의 형태로 행사를 치렀다. 1981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아카시아 워크숍이 열렸다. 필리핀이 작성을 한 컨설팅 업무를 위한 윤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문서를 후에 1983년에는 10개국 모두가 서명을 했고 이 문서는 1981년 국제건축가연맹 바르샤바대회에서 거론되었었고, 같은 해 CAA 나이로비회의에서 그리고 공학회 아시아연합 및 국제기술사연맹에서 발표되었다. 계획 및 주거 아시아협회(The 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는 이미 이 문서를 받아들였고, UIA도 1987년 이 문서를 받아들였다.

1981년 8월 홍콩에서의 제2차 아카시아 워크숍은 주로 실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논의했다. 유한책임과 협업; 자국내의 실무체계; 건축가의 유동성; 건축가의 역할과 실무규약 등이다. 1982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드디어 제1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the first ARCASIA Forum)가 시작되었다.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제2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는 아카시아 최초의 대규모 국제대회인 제1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1, the fir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때 우리협회(KIRA)가 참관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이듬해인 1985년 인도 봄베이 이사회에서 11번째의 아카시아회원으로 입회승인이 되었다. 198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제2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2)와 제3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1987년에는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IAI)의 주관으로 발리에서 제4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그때부터는 건축사대회와 학술토론회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듬해 1988년 우리협회(KIRA) 주관으로 열렸던 ACA-3부터는 짝수 해에는 건축사대회를, 홀수 해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주제 및 개최(Theme, Venue, Date)

아카시아 점검표(ARCASIA Checklist)에 의하면 주제(Theme)는 반드시 아시아 상황에서의 디자인 문제들 중에서(Amongst Design Issues in the Asian Context)

택해야만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그 동안의 주제들을 보면 건축사대회(ACA)의 주제는 비교적 건축사라는 직업과 사회와의 관계나 전략들, 또는 환경개발의 차원에서 아시아 건축가/건축사들의 역할 및 건축의 기여도 등에 관한 것들인 반면에 학술토론회(Forum)의 주제는 아시아라는 상황에서의 건축 및 도시의 주제성 내지는 고유성을 중심으로 무언가 생각을 요하는 것들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다.

연사(Speaker)들은 매회 3~4인에서 6~7인 정도이며 토론자들이 별도로 있다. 연사로 그 동안은 회원국들의 건축가나 사상가들이 초청되었었으나 최근 들어 세계화의 추이에 따라 서구에서 유명건축가를 초청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8차 토론회(1995 싱가포르)에서 렘 쿨하스(Rem Koolhaas)와 9차 토론회(1997년 일본)에서 영국의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가 초청된 외에는 아시아의 건축가들이 연사였다. 한국인 건축가로는 서울포럼의 김진애박사가 9차 토론회 연사로 초청받았었고 토론회가 아닌 ACA-5(1992년 파키스탄)에 성균관대학교 이상해교수가 연사로 초청 받은 바 있다.

- Forum 1 주 제: 건축에서의 혁신 (Innovation in Architecture)
개 최: 1982년 10월 스리랑카 콜롬보
디렉터: 로날드 푼(홍콩)
- Forum 2 주 제: 아시아의 정체성 (Asian Identity)
개 최: 1984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디렉터: 로날드 푼(홍콩)
- Forum 3 주 제: 아시아건축에서의 설계경향
(Design Directions in Asian Architecture)
개 최: 1986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디렉터: 로날드 푼(홍콩)
- Forum 4 주 제: 나의 건축(My Architecture)
개 최: 1987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디렉터: 로날드 푼(홍콩)
- Forum 5 주 제: 아시아건축에서 사고(思考)의 양식
(Food for thought in Asian Architecture)
개 최: 1989년 10월 태일란드 방콕
디렉터: 로날드 푼(홍콩)
- Forum 6 주 제: 아시아 상황에서 집단 주거의 신사고(新思考)
(New thought in Mass Housing in the Asian Context)
개 최: 1991년 9월 중국 베이징
디렉터: 로날드 푼(홍콩)
- Forum 7 주 제: 사라져가는 아시아 도시들(The vanishing Asian cities)
개 최: 1993년 9월 홍콩
의 장: 지미 림(말레이시아)
- Forum 8 주 제: 아시아世紀의 아시아의 도시들(Asian Cities in Asia's Century)
개 최: 1995년 11월 싱가포르
의 장: 지미 림(말레이시아)
- Forum 9 주 제: 아시아에서 미래의 건축(Architecture of the Future in Asia)
개 최: 1997년 9월 일본 도쿄
의 장: 고이치 나가시마(일본)

(글/조인숙, 본협회 국제위원, 다리건축)